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관한 연구

김현경* · 장상옥** · 유태명** · 최정혜**

진해고등학교* ·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경상대학교교육연구원, 여성연구소연구원**

A Study on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the Family Strength

Kim, Hyun-Kyung* · Jang, Sang-Ock** · Yoo, Tae-Myung** · Choi, Jeong-Hye**

*Jinhae High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Fellow, Educational Research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i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the family strength. The subject of this study were 598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nam Province. Statist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SPSS 12.0 Programs including frequencies, t-test, one-way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egree of high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f the family strength was found to be 3.28 out of 5.

Second, The significant variables affecting the results were monthly pocket money, father's occupation, self-esteem and filial duty consciousness.

Third, filial piety was found to be a variable most affecting family strength.

Key Words: 고등학생(High school students), 가족건강성(family strength), 관련변인(related variables)

I. 서론

오늘날 가족건강성은 사회적 화두이다. 급격한 산업화의

영향으로 삶의 양식이 다양해지고,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가족불안정성이 증대하여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 역시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만들어진 결과라 생

1) 교신저자: Choi, Jeong-Hye, 900 Gazwa-do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Jinju city, Gyeongnam 660-701, Korea

Tel: 055-751-5639 Fax: 055-756-5637 E-mail: jhchoi7@gnu.ac.kr

2) 본 논문은 2007년도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로서 2009년 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임.

각되는데, 이는 사회가 건강하려면 그 기초집단인 가족이 건강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가족은 인간이 사회화 과정을 경험하는 최초의 장소로서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자녀의 인격발달에 큰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청소년의 자아성장에도 중요한 환경이 된다(정옥분, 2000).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과도기적 시기로서 빠른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인지, 정서 그리고 사회적 면에서 급격한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러한 청소년기는 역할 갈등,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부담 등 일상생활에서 많은 정서적, 사회적, 신체적 부적응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만약 청소년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우울증, 무단결석, 약물남용, 임신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키기도 한다(정옥분, 2000). 최근 청소년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총체적인 가족문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부모를 가진 중류층 가정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결손가족이나 저소득 층 같은 가족의 물리적 환경보다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남현미·옥선화, 2001)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환경과 관련해서 청소년이 가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져(오재연, 2003; 임정아, 2004) 가족의 건강성 여부가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건강가족이론은 건강한 가족체계는 개별가족구성원의 가치관 및 노력 그리고 그 가족이 속한 확대가족체계나 사회체계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으로서(Olson & DeFrain, 2003), 이는 가족원 개개인을 건강하게 만들고 사회전체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가족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권대희·오윤자, 2004). 이러한 측면을 감안해볼 때, 지금까지 주로 부부체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던 가족건강성을 청소년 자녀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과제라 생각된다. 그러나 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부부체계인 남편이나 아내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유영주, 2001),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자녀를 대상으로 가족건강성을 연구한 몇몇 선행연구(권대희, 2003; 오재연, 2003; 임정아, 2004)를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가족건강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지적, 정의적 특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심리적 환경으로 보고되고 있어,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에 가족건강성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건강가족 관련 선행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과 관련된 변인들로 대부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들을 언급하고 있다(유영주, 2001; 양순미·유영주, 2003; 최정혜, 2005, 2006). 구체적으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족의 형태, 부모의 직업 및 교육경력 등인데, 가족건강성과 관련하여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권대희·오윤자).

한편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인류의 중요한 덕목으로서 자식의 부모에 대한 총괄적인 윤리체계를 한마디로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부모자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서 우리의 의식과 예의범절에 뚜렷이 반영되어 있다(김태현, 1999; 최정혜, 1999). 비록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지나친 지식교육 강조로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측면도 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인성교육과 관련된 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되고 있고(이숙희·신희효·이선정, 2005), 무엇보다 효의식은 우리나라 가족윤리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 역시 인간발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과 건강한 성격발달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양순미·유영주, 2003).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자신에 대해 갖는 긍정적인 감정으로서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심리적 특성 변인으로 다루어져 왔으며(최희진·유영주, 2001),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경험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도 높아진다(Branden, 1994: 재인용, 권대희·오윤자, 2004)는 사실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가족건강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관련 변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건강성은 청소년의 심리적 환경으로 매우 중요한 환경인데 비해 이에 대한 선

행연구가 매우 부족하다는 관점에서, 청소년이면서 성인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에서 의미 있었던 사회인구학적인 변인과 효의식, 자아존중감에 따라 가족건강성이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을 파악하고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 수준은 관련변인(사회인구학적 변인, 효의식, 자아존중감)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가족건강성의 개념

최근 가족학연구에 있어서 가족을 건강가족적 관점(Family Strengths Perspective)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가족의 긍정적인 측면과 가족의 장점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에 대한 관점이다(유영주, 2004; Olson & DeFrian, 2003). 건강가족에 대한 연구는 1962년 Otto가 건강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원간 상호작용 유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여러 학자들에 따라 개념도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가족치료 학자들은 가족을 체계로 간주하면서 체계가 병리적이지 않고 기능적으로 작용할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하며, 가족 학자들은 가족관계적인 측면에서 상호관계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때를 건강가족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건강가족을 논함에 있어 가족을 단위로 접근하면서 사회

심리·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경향이 다(유영주, 2001).

건강가족의 특성에 대해 Stinnet & Sauer(1979)는 애정과 감사에 대한 표현능력, 가족원들이 함께 시간보내기, 가족에 몰입하는 정도나 책임감, 긍정적 의사소통 능력, 종교적 태도, 문제나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 등의 6가지 특징을 보았으며, Curran(1983)은 건강가족의 특성을 의사소통을 비롯하여 문제해결능력까지 15가지로 지적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Hall(1994)은 이상적인 가족형태로 세대간의 상호작용, 역할공유, 유연하고 개방된 관계, 유연한 신념, 최소한의 권위구조, 활발한 사회적 관계, 안정되고 통합된 체계 등으로 보았다(최정혜, 2004).

한국에서는 1990년대 전전가정육성 프로그램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 한국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유영주, 2004)에서,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이 올바르고 적합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가족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정의하였다. 가족의 건강성에 대한 선행연구결과 전반적으로 건강한 가족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공통되는 특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권대회·오윤자, 2004). 첫째, 건강한 가족은 가족원의 개별성을 인정하면서도 가족원간의 유대와 결속을 도모하고, 둘째, 분명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며, 셋째, 가족문제나 위기를 잘 해결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며, 마지막으로 가족공통의 가치관과 규칙이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개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란 “고등학생 가족원 개개인의 발달을 도모하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이 원만하여 집단으로서의 가족체계를 잘 유지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의 관련변인에 대한 선행 연구

1)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

면, 권대회(2003)의 연구에서 가족건강성이 5점 만점에 평균 3.46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긍정적이라고 보고한바 있으며, 윤세은(2000)은 고등학교 청소년들의 가족건강성이 3.35점으로 평균수준 이상으로 가족의 건강성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임정아(2004)는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 점수가 중간점수(M=3.34)로 나타나 자신의 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인의 선행연구로는, 성별 변인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건강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며(윤세은, 2000), 부모의 직업유형에 따른 차이로서 아버지가 직업이 없는 경우 가족건강성을 매우 낮게 인지하고, 어머니가 육체노동/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우에 가족건강성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권대회, 2003; 윤세은, 2000; 임정아, 2004). 또한 사회경제적 수준과 관련된 연구로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다는 연구(권대회, 2003; 윤세은, 2003; 임정아, 2004)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경우에 오히려 가족건강성이 낮다고 보고(어은주, 1996)한 연구도 있어, 일치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부모의 학력,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권대회, 2003; 임정아, 2004)가 있고, 종교와 관련하여 아버지 종교와 아동자신의 종교가 가족건강성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거나(윤세은, 2000) 아버지종교만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권대회, 2003)하기도 하였다. 출생순위와 관련하여 자매만으로 구성된 경우에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건강성 지각 수준이 높다는 연구(윤세은, 2000)와 출생순위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연구(권대회, 2003)가 있어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효의식

효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왔으며, 서양에서보다 동양사회, 특히 유교문화권에서 더욱 강조되는 가치로 여겨져 왔다. 유교문화권에서 효는 지난 수세기 동안 부모

자녀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가치로서 우리의 의식과 예의범절에 뚜렷이 반영되어 왔다(김태현, 1999; 최정혜, 1999). 최정혜(1999)는 효의식에 대한 세대별 비교연구에서 청년층의 효의식이 부모부양의식과의 상관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효의식이 가족건강성의 관련변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또한 이숙희등(2005)은 중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의 효의식 실천을 통해 올바른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하여, 효의식이 가족건강성의 관련변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효의식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도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어 본 연구에서 효의식을 관련변인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자신에 대한 태도나 자신의 가치에 대한 판단으로서 효과적인 대인관계의 유지나 학업성취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권대회·오윤자, 2004). Rosenberg(1985)는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자기 존경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가족건강성과 연계한 자아존중감 연구를 보면, 권대회·오윤자(2004)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오재연(2003)은 가족의 심리적 환경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임을 밝힌바 있다. 또한 김소영(1996)은 건강한 가족의 구성원은 자아존중감이 높아서 가족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의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어은주, 1996)에서도 두 변인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나 자아존중감이 가족 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등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가족건강성 수준이 어떠한지,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효의식, 자아존중감 등의 관련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경남지역의 3개의 시(C시·J시·T시)와 2개의 군(G군·Y군)에 재학 중인 남·여 고등학생들로서, N고, T고, T여고, C여고, J기계공고, G공고 등에 재학 중인 598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을 보면 다음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의 학년은 2학년(45%)이 가장 많고, 성별은 남학생(55.7%)이 여학생(44.3%)보다 조금 많으며, 학교형태는 인문계가 높은 비율을 보이고, 거주지역은 도시지역이(67.2%)이 농촌지역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부모 연령은 45~50세 미만이 가장 높고, 부모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생이 지각하는 경제수준은 중상(46%)이 가장 많았으며, 한달 용돈은 차비를 제외한 순수한 용돈으로 2만원 미만(31.4%)이 가장 높게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98)

구분		N (%)	구분		N (%)
학년	1학년	128 (21.4)	학교 형태	실업계고교	186 (31.1)
	2학년	269 (45.0)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91 (15.2)
	3학년	201 (33.6)		인문계 여자고등학교	186 (31.1)
인문계 남여공학				135 (22.6)	
성별	남	333 (55.7)	거주 지역	도시지역	402 (67.2)
	여	265 (44.3)		농어촌 지역	196 (32.8)
아버지 연령	45세 미만	159 (26.6)	어머니 연령	40세 미만	130 (21.7)
	45-50세 미만	325 (54.4)		40-45세 미만	258 (43.1)
	50세이상	114 (19.1)		45-50세 미만	181 (30.3)
50세 이상				29 (4.9)	
아버지 교육수준	중졸	46 (7.7)	어머니 교육수준	중졸	62 (10.4)
	고졸	367 (61.4)		고졸	426 (71.4)
	대졸이상	185 (30.9)		대졸이상	110 (18.4)
가정의 경제수준	하	83 (13.9)	한달 용돈	2만원 미만	188 (31.4)
	중하	199 (33.3)		2-3만원	135 (22.6)
	중상	275 (46.0)		3-4만원	131 (21.9)
	상	41 (6.9)		5만원 이상	144 (24.1)
아버지 직업	무직	25 (4.2)	어머니 직업	무직	225 (37.6)
	농업·생산관련직	185 (30.9)		농업·생산관련직	59 (9.9)
	판매·서비스직	105 (17.6)		판매·서비스직	152 (25.4)
	사무직	154 (25.8)		사무직	43 (7.2)
	전문기술·경영·전문직	91 (15.2)		전문기술·경영·전문직	46 (7.7)
	기타	38 (6.4)		기타	73 (12.2)
노부모 부양책임	장남	60 (10.0)	본인의 노인공경 정도	공경 안한다	23 (3.9)
	아들들	53 (8.9)		조금 공경한다	345 (57.7)
	아들·딸 모두	432 (72.2)		많이 공경한다	230 (38.5)
	부모자신	16 (2.7)			
	국가	37 (6.2)			
결혼 후 부모와 동거여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306 (51.2) 292 (48.8)	현재 효의식 정도	별로 없다	60 (10.0)
				조금 남아있다	344 (57.5)
				많이 남아있다	194 (32.4)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아버지 직업은 농업·생산 관련직(30.9%)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무직(25.8%)이며, 어머니의 직업은 전업주부(37.6%)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판매·서비스직(25.4%)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해 아들·딸 모두가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72.2%)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노인 공경정도는 조금 공경한다(57.5%)가 가장 높고, 결혼 후에 부모와의 동거여부는 원한다(51.2%)가 원하지 않는다(48.8%)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현재 효 의식 정도는 조금 남아있다(57.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질문지로서 척도의 내용 및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가족건강성 척도는 어은주와 유영주(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최정혜(2004)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가족간의 의사소통, 유대,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치체계공유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개 문항이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고등학생들의 가족건강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5$ 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한 이영자(1995)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총 8개의 문항을 사용한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부터 '정말 그렇다'에 5점까지로서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85$ 로 나타났다. 효 의식 척도는 최정혜(1999)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5개 문항의 5점 Likert 척도로서, '전혀 없다'에 1점부터 '많이 있다'에 5점까지 점수를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효의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89$ 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예비조사는 2007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T고등학교 1학년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통계처리 후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본 조사는 유의표집으로 2007년 4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 절차는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배부하여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 665부를 배부하여 644부를 회수하였고, 그 중 부실하게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59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한글 SPSS 12.0을 이용하여 신뢰도, 백분율, 평균, t-test, 일원변량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N=598)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가족건강성	가족간 의사소통	.856
	가족의 유대	.871
	문제해결 수행능력	.841
	가치체계공유	.812
	계	.954
자아존중감	8	.846
효의식	5	.895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가족건강성 수준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 나타나 가족건강성이 보통 수준임을 보여준다. 본 결과는 권대희(2003)의 청소년자녀의 가족건강성 3.46이나 임정아(2004)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3.34보다 조금 더 낮게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경향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권대희, 2003; 임정아, 2004)와 달리 본 연구 대상은 지방이므로, 지역과 대상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겠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간 의사소통',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에서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들이 가족원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족규범이나 가족규칙 등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은 낮게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권대희, 2003; 어은주, 1996)와 비슷한 경향인데, 고등학생의 가치관이 가족원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특징과 관련하여 볼 때, 부모-자녀간 세대차이, 연령 차이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수준

(N=598)

구분	M (SD)
전체 가족건강성	3.28 (.76)
가족간 의사소통	3.30 (.85)
가족의 유대	3.49 (.83)
문제해결 수행능력	3.34 (.81)
가치체계 공유	2.99 (.82)

2. 관련변인에 따른 가족건강성 차이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변인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달 용돈($p<.05$), 아버지 직업($p<.05$), 자아존중감($p<.01$), 효의식($p<.01$) 등으로 나타났다. 즉 한달 용돈이 5만원 이상인 집단이 한달 용돈이 2만원 미만인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하는 청소년보다 가족건강성이 높다는 윤세운(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 아버지 직업이 무직이 아닌 직업군 일 때 무직에 비해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낮게 지각할수록 가족건강성을 낮게 지각한다고 보고한 선행연구(권대희, 2003; 윤세운, 2003; 임정아, 2004)와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결과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도 높다는 권대희(2003)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이다. 또한 효의식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가족건강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3.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인의 영향력

관련변인들이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부록 1)하였으며, Durbin-Watson 계수는 2.010으로 회귀가정을 충족하였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효의식($\beta=.505, p<.01$)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고등학생의 효의식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게 나타나

〈표 4〉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효의식, 자아존중감에 따른 가족건강성

(N=598)

변인	N	가족건강성		
		M SD	F/t D	
학년	1학년	128	3.27 (.76)	.787
	2학년	269	3.24 (.79)	
	3학년	201	3.33 (.72)	
성별	남학생	333	3.33 (.79)	1.869
	여학생	265	3.21 (.72)	
거주 지역	도시지역	402	3.27 (.79)	-.539
	농어촌지역	196	3.30 (.70)	
아버지 학력	중졸	46	3.16 (.92)	.610
	고졸	367	3.28 (.71)	
	대졸이상	185	3.30 (.82)	
어머니 학력	중졸	62	3.18 (.79)	1.436
	고졸	426	3.27 (.73)	
	대졸이상	110	3.38 (.85)	
경제수준	하	83	3.13 (.96)	2.554
	중하	199	3.24 (.72)	
	중상	275	3.31 (.69)	
	상	41	3.51 (.92)	
한달 용돈	2만원 미만	188	3.18 (.79)	B
	2-3만원	135	3.29 (.68)	*
	3-4만원	131	3.26 (.75)	2.869 AB
	5만원 이상	144	3.42 (.80)	A
아버지 직업	무직	25	2.83(1.00)	B
	농업·생산관련직	185	3.22 (.71)	A
	판매·서비스직	105	3.35 (.73)	*
	사무직	154	3.36 (.75)	2.657 A
	전문기술·경영·전문직	91	3.32 (.83)	A
	기타	38	3.20 (.72)	A
어머니 직업	무직	225	3.24 (.82)	2.107
	농업·생산관련직	59	3.35 (.72)	
	판매·서비스직	152	3.27 (.76)	
	사무직	43	3.07 (.83)	
	전문기술·경영·전문직	46	3.56 (.65)	
	기타	73	3.30 (.59)	
자아존중감	낮은 집단	300	3.05 (.66)	-7.609**
	높은 집단	298	3.51 (.79)	
효의식	낮은 집단	225	2.83 (.70)	-12.676**
	높은 집단	373	3.55 (.66)	

*p<.05, ** p<.01

〈표 5〉 가족건강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영향력

(N=598)

	모형1		모형2	
	b	β	b	β
자아존중감	.360	.355**	.193	.190**
효의식			.479	.505**
상수	2.030		0.618	
F값	85.068**		161.267**	
R ²	.126		.353	
R ² 변화량			.228	
D-W계수	2.010			

** p<.0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효의식이 가장 큰 영향변인임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190$, $p<.01$)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가족건강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은 효의식과 자아존중감 등 두 변인이 합하여 총 22.8%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F=161.267$, $p<.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건강성이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곧 성인기로 진입하여 가정과 사회의 주축이 될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수준을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경남지역 598명의 고등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이 3.28 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의 하위영역은 가족의 유대, 문제해결 수행능력, 가족간 의사소통, 가치체계 공유 순으로 나타나 가족의 유대가 가장 높고, 가치체계 공유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한달 용돈, 아버지의 직업, 자아존중감, 효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효

의식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의 효의식, 자아존중감 등의 두 변인이 가지는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대한 설명력은 22.8%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권대희, 2003; 임정아, 2004)과 비교해볼 때, 본 연구의 가족건강성이 더 낮게 나타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왜냐하면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하여 학교 및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건강성 하위영역에서 가족원 간의 가치체계 공유 부분이 가장 낮게 나타난 점은, 세대 간의 가치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면을 시사한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증진을 위해서, 부모-자녀간의 가치체계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의 관련변인 중에서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난 효의식과 자아존중감 변인에 대한 심층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특히 효의식은 선행연구에서 연구되지 않은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다룬 변인인데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 역시 가족건강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 앞으로 가족건강성 연구에서 이 두 변인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효 의식으로 나타났으므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높이는 일환으로 효 의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 가정교과의 가족생활 관련 수업을 통해 효 의식을 증진하는 교육 프로그램 모색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일부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충분히 신뢰성을 가지지만 표준화된 척도가 아니므로 향후 표준화된 척도 개발이 필요하리 하겠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중소도시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사회인구학적인 변인 외에 효의식, 자아존중감 등의 관련변인을 연계하여 그 영향력을 규명하였다는데 의의를 둔다.

참고문헌

권대회(2003).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존중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소영(1996). 가족체계유형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태현(1999). 노인의 가족결속도와 효의식 및 우울에 관한 비교문화적 연구. *한국노년학*, 19(2), 79-96.
 남현미·옥선화(2001). 가족의 심리적 환경과 청소년의 자기 통제력 및 친구 특성이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7), 37-58.
 양순미·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9), 121-134.
 어은주(1996). 한국도시가족의 건강성 및 관련 변인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어은주·유영주(1995). 가족의 건강도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145-155.
 오재연(2003).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계숙(2004). 건강가족을 위한 가족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성인의 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73-180.
 윤세은(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 정체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영주(2004). 건강가족 확산을 위한 실천적 과제. *한국가족관계학회 추계학술대회*, 3-11.
 유영주(2001). *건강가족연구*. 서울: 교문사.
 이숙희·신효식·이선정(2005). 중학생의 효의식과 효행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7(2), 159-170.
 이영자(1995).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과 우울 및 불안과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임정아(2004).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학교적응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2000). *청소년기의 발달특성과 생활교육*. 학지사.
 최정혜(2006). 맞벌이부부의 가족스트레스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4(6), 47-58.
 최정혜(2005). 주말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건강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16.
 최정혜(2004). 주말부부의 가족스트레스, 대처전략 및 가족건강성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2), 69-83.
 최정혜(1999). 가족주의 가치관과 효 및 부모 부양태도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년층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9), 85-101.
 최희진·유영주(2001). 전업주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가족기능도와 관계연구. *건강가족연구*. 교문사. 229-248.
 Olson, D. & DeFrain, J.(2003). *Marriage and families: diversity and strengths*. Mayfield publishing Company: 재인용.
 권대회·오윤자(2004).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115-127.
 Rosenberg, M.(1985). Self-concept &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In R.L. Leaky(Ed). *The development of the self*. New York Academic Press.
 Stinnet, N. & Sauer, K. H.(1979). Relationship characteristics of strong families. *Family Perspectives*, 11, 3-11.
 White, L. K., and Rogers, S. J.(1997), Strong support but uneasy relationships: Coresidence and adult children'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Feb.), 62-76.

<국문요약>

본 연구는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경남지역의 고등학생 598명이며,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은 5점 만점에 평균 3.28점으로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유의한 관련변인은 한달 용돈, 아버지의 직업, 자아존중감, 효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효의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이 보통수준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에 가장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효의식으로 규명되었으므로, 고등학교 가정교과 수업을 통해 효의식을 강화하여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 논문접수일자: 2009년 7월 30일, 논문심사일자: 2009년 7월 31일, 게재확정일자: 2009년 9월 23일

<부록 1> 고등학생의 가족건강성 변인의 상관관계

(N=598)

	(1)	(2)	(3)	(4)	(5)	(6)	(7)	(8)	(9)
(1)성별	1								
(2)학년	.149**	1							
(3)아버지연령	.048	.149**	1						
(4)어머니연령	-.017	.118**	.629**	1					
(5)경제수준	-.151**	.032	.016	.068	1				
(6)한달용돈	.081*	.083*	-.034	.033	.248**	1			
(7)자아존중감	-.032	.020	.017	.011	.145**	.134**	1		
(8)효의식	-.100*	-.033	.028	.075	.073	.125**	.323**	1	
(9)가족건강성	.076	.035	.043	.033	.109*	.121**	.354**	.566**	.513**

* p<.05, ** p<.01